

간병일지

■ 간병근무일자 : 2026년 1월 5일

※ 간병 일(日) 단위로 기록

| 환자성명 | 의료기관 | 병실호수 | 입원날짜 | 간병인명 |
|-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박상훈 | 광주센트럴병원 | 406 | 2026년 1월 3일 | 김금보라 |
| 자가 보행 | | 음식 경구 섭취 | | 체내 관 삽입 |
| 불가능 | | 가능 | | |
| 시간 | 간병 내용 | | | |
| 00시 ~ 01시 | | | | |
| 01시 ~ 02시 | | | | |
| 02시 ~ 03시 | | | | |
| 03시 ~ 04시 | | | | |
| 04시 ~ 05시 | | | | |
| 05시 ~ 06시 | | | | |
| 06시 ~ 07시 | 밤 동안 심한 기침과 고열증상 지속되어 수면을 취하지 못함. 해열제 주사 추가됨. 부종이 많이 심하여 간호사에게 말했으나 수액 때문일 수 있다고 함. 수액이 아무리 많이 들어갔어도 이 정도의 붓기는 안 될것 같다 했으나 간호사 말이 그럴수도 있다 함. | | | |
| 07시 ~ 08시 | 1분에 20회 이상 기침을 하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. 해열제 주사 후에도 고열 지속. 두통이 심하여 간호사에게 말하니 해열제에 진통제가 섞여있다고 함. | | | |
| 08시 ~ 09시 | 환자의 심부름을 수행하였습니다., 두통, 기침, 어지러움증 심함. 누워서 빨대로 물 먹는 상태. 기침때문에 대화가 안됨. 갑자기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로 담당의 회진 요구함. | | | |
| 09시 ~ 10시 | 담당의 회진. CT상 간쪽으로 물혹이 다발적 발견되긴 했으나 출혈을 의심할 소견은 없었다고 함. 아직 다른 검사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, 오늘 한 피검사 상 Hb 6.6 으로 다시 조금 떨어진 상태. 내일 위, 대장 내시경 해서 출혈소견이 있는지 보자고 함. 환자 고열 지속되고 기침이 너무 심하다 하니 독감검사 및 코로나 검사 등 시행한다고 함. | | | |
| 10시 ~ 11시 | 기력이 없고 심한 기침으로 식사를 못하는 상태. 수액이 많이 달려있고 어지러움증이 심해 화장실 이동 시 너무 불안한 상태.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기도 한다 함. 담당 원장님께 1차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하는건 아닌지 물어봤으나 일단 내일 내시경 검사 후 결정하자고 함. 골수검사 가능성까지 설명 듣고 환자 많이 불안한 상태임. | | | |
| 11시 ~ 12시 | 반찬을 조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., 원하는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., 식사를 보조하였습니다., 힘들지만 식사 격려함. 입맛 없고 두통이 너무 심해 오래 앉아 있기 힘들다고 하여 소량만 식사. 해열제 주사 후 열이 안떨어져 경구로도 약 하나 더 추가 나서 복용함. | | | |
| 12시 ~ 13시 | 독감 &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음성. 환자 다행히 열은 조금 떨어짐. (그래도 미열은 지속. 37.6-8) 밤동안 못 취했던 수면 취하도록 격려. | | | |
| 13시 ~ 14시 | 병실 내 취침하였습니다., 추가 검사 결과 나왔냐고 물어보니 외주검사라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함. 고열증상은 수혈 후 있을수도 있는 증상이라고 설명들음. | | | |
| 14시 ~ 15시 |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을 심하게 함. 부종도 그대로. 움직이지 않아서 어지러움증은 모르겠으나 두통도 지속된다고 함. | | | |
| 15시 ~ 16시 | 잡은 간격으로 기침하며 수면유지 노력중임. | | | |
| 16시 ~ 17시 | 다시 고열. 해열제 주사함. 심한 부종과 더 심한 기침, 어지러움, 급격한 컨디션 저하로 다시 한번 1차병원으로 전원해야하는거 아닌가 간호사에게 물어봤으나 어차피 약 먹고 내시경을 하려면 그쪽병원에서도 내일이 되어야 하니, 일단 여기서 내시경을 하고 지켜보자고 함. 담당의도 전원까지는 아직 관찮을것 같다고 했다 함. | | | |
| 17시 ~ 18시 | 고열 지속됨. 해열제 주사 후 1시간이 경과 했으나 아직 고열 지속. 간호사는 일단 지켜보자는 말만 함. 혹시 당 떨어질까봐 사탕 입에 물려줌. 두통도 지속. 부종도 아직 너무 심함. (시야가 좁아질 정도로 눈도 부음) | | | |
| 18시 ~ 19시 | 해열진통제 주사 후에도 고열과 두통이 지속되어 간호사에게 관찮은거냐고 물어봄. 담당의 보고 하겠다 함.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 앉았다 함. 어지러움 도 그대로. 혼자 보행 절대 하지 않도록 함. | | | |
| 19시 ~ 20시 | 해열진통제 알약 하나 더 복용함. 대장 내시경 위해 약물도 복용 시작함. 섭취한게 너무 없어 비급여라도 관찮으니 영양제를 맞고싶다 하니 수혈도 했고, 환자의 출혈부위나 상태를 정확히 알수 있을때로 보류함. 추가 수혈 가능성 설명 들음. | | | |
| 20시 ~ 21시 | 대장내시경 약물 복용중임. 아직 화장실은 신호가 오지 않았으나 보행에 불편감이 있어 혹시 모르는 일에 대비해 매점에서 대변기 구입해 옴. | | | |
| 21시 ~ 22시 | 설사 시작됨. 어지러움증상, 고열, 두통, 부종 등 그대로 지속됨. 시부모님 오셔서 교대 후 귀가함. | | | |
| 22시 ~ 23시 | | | | |
| 23시 ~ 24시 | | | | |

※ 손해보험협회 권장 양식

위 사항(작성 내용)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작성자(간병인) : 김금보라



작성일자 : 2026년 1월 8일

주식회사 도원 대표이사

